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과 아버지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오경숙, 권다은, 윤유나, 백지연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geb1568@daum.net

A Study o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Father's Role Recognition of Two-income Family Fathers

Kyeong-Sook Oh, Da-Eun , Yu-Na Yoon , Ji-Yeon Bae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 역할 인식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D시와 S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영유아를 재원시키고 있는 맞벌이 가정 아버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기술, t-검정,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인식에 대해서는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다. 둘째, 아버지의 배경에 따른 일·가정 양립과 아버지 역할인식 수준은 자녀의 연령, 성, 아버지 학력,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 및 아버지 역할 인식의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졌다.

Key Words :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일가정 양립, 생산적 아버지 역할

1. 서론

많은 학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 ([1],[2])을 산출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유아의 인지 발달, 성역할 발달,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4],[5])들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인지능력이 촉진하게 하고, 대인문제해결력 향상, 이해력,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애정적역할은 자녀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사회 도덕성 함양과 정적 관련이 있고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촉진한다는 보고[6]들이 증가하면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가정의 양립은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중

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일·가정양립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7].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은 풍요로운 삶과 안정적인 가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계부양 외에 가정에서 다른 역할이 부재했던 남성에게 일·가정 양립은 새롭게 적응해야 할 변화이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가정양립의 문제의식과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인식, 가치관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녀와 발달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있음을 볼 때[8],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자녀의 발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보내는 것보다 아버지의 '적절한 양육참여'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9]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적절한 양육참여'를 지칭하는 '생산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간간히 이루어진 일·가정 양립 연구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많이 다루고 있다. 남성 대상 연구는 단편적 성차를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행동과 생산적인 아버지 역할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 및 생산적인 아버지 역할 인식의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과 아버지 역할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개인변인에 따른 일·가정양립과 아버지 역할인식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와 S시에 소재한 만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 105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5)

변 인	N(%)	변 인	N(%)
자녀 연령	영아 41(43.1)	학력	전문대졸 이하 30(28.6)
	유아 64(67.2)		대학교졸 이상 75(71.4)
자녀 성	남아 49(51.5)	직업 유형	사무직 47(44.8)
	여아 56(58.8)		생산직 26(24.8)
	전체 105(100.0)		서비스직 등 32(30.5)
		전체	105(100.0)

2.2 연구도구

2.2.1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하[10]가 사용한 일·가정양립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하위요인은 일과 가정의 균형(11문항), 일과 여가의 균형(6문항), 일과 개인 생활(9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의 전체적인 Cronbach's α 계수는 .930으로 나타났다.

2.2.2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환[11]이 사용한 '생산적 아버지 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하위요인은 인지적 발달적지지(11문항),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6문항), 자녀돌보기 및 지도(9문항)로, 총 26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D시와 S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맞벌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통해 유아의 학부모에게 배부되었고 교사가 다시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 15부를 제외한 105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과 아버지 역할인식 수준

[표 2]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과 아버지 역할참여수준(N=105)

	변 인	최저~최고	M	SD
일·가정 양립	일·가정균형	1.50-4.50	3.07	.66
	일·여가균형	1.20-4.80	2.82	.96
	일·개인생활균형	1.25-4.50	2.89	.82
	전체	1.20-4.80	2.92	.73
아버지 역할	발달적지지	2.45-4.00	3.28	.42
	돌보기 및 지도	2.00-4.00	3.15	.48
	함께하는 활동	2.00-4.00	2.93	.46
	전체	2.00-4.00	3.12	.40

[표 2]와 같이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행동의 전체적인 평균은 5점 만점에 2.9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들은 일·가정균형이 3.0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개인생활균형(M=2.89), 일·여가균형(M=2.89) 순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역할인식에서의 전체적인 평균은 5점 만점에 3.12로 나타나 연구대상 아버지들은 보편적 수준

의 아버지역할 인식을 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발달적 지지가 평균 3.28로 가장 높게 인시고 있었고, 다음으로 돌보기 및 지도(M=3.15), 함께하는 활동(M=2.9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수준은 약간 낮은편이고,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평균수준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맞벌이 가정 아버지 배경변인에 따른 일·가정양립과 아버지 역할인식 차이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일·가정양립 인식에 대한 차이

변인		n	일·가정 양립		아버지역할인식	
			M	SD	M	SD
자녀 연령	영아	41	2.84	.74	3.16	.36
	유아	64	2.98	.73	3.09	.42
	<i>t</i>		-.10		.80	
자녀 성별	남아	49	3.05	.72	3.15	.42
	여아	56	2.81	.74	3.10	.39
	<i>t</i>		1.73		.61	
학력	전문대졸 이하	30	3.08	.75	3.08	.41
	대졸이상	75	2.86	.72	3.14	.40
	<i>t</i>		1.41		-.67	
직업 유형	사무직	47	2.85	.77	3.16	.41
	생산직	26	3.14	.65	3.11	.35
	서비스직	32	2.86	.74	3.07	.42
	<i>F</i>		1.57		.47	

[표 3]과 같이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일·가정양립을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 자녀 성별, 아버지학력, 직업유형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변인 중 일·가정양립에서는 유아의 아버지(M=2.98)가 영아의 아버지(M=2.84)보다 높고, 남아의 아버지(M=3.05)가 여아의 아버지(M=2.81)보다, 전문대졸 이하(M=3.08)가 대졸 이상(M=2.86)의 아버지보다, 생산직(M=3.14)에 근무하는 아버지가 서비스직(M=2.86)과 사무직(M=2.85)보다 일·가정양립 인식 수준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역할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 자녀 성별, 아버지학력, 직업유형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변인 중 영아의 아버지가(M=3.16)가 유아의 아버지(M=3.09)보다 높고, 남아의 아버지(M=3.15)가 여아의 아버지(M=3.10)보다, 대졸이상(M=3.14)이 전문대졸 이하(M=3.08)보다, 사무직에 근무하는 아버지가(M=3.16) 생산직(M=3.11), 서비스직

(M=3.07)에 근무하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역할인식수준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편 이었다. 이는 아직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역할인식은 보통수준이었고, 자녀의 발달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가이드북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나 아버지 역할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남아를 둔 아버지가 여아를 둔 아버지에 비해, 전문대졸이하의 아버지가 대졸이상의 아버지보다 일·가정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성별 외에 인구 사회적 요인과 연령과 교육수준, 취업분야는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심지양[10]의 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 역할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 및 아버지역할 인식의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고, 아버지역할의 검사도구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1] 임진경, “어머니의 기질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 [2] 권희경,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 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교육학논집, 제13권 4호, pp. 79-98. 2009년.
- [3] 우미경,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4] 한은정,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대인 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5] 최미숙, 송순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5권 1호, pp. 313-332. 2016년.
- [6] 김연, 유아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맞벌이 부부의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31권, 6호, pp. 95-121. 2011년.
- [7] 김경미,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년.
- [8] Snarey, J.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9] 이영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제 4권, 1호, pp.139-151, 2001년
- [10] 김은하. “기혼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년.
- [11] 심지양,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